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6월 3일 (제95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 눈치 보지 말자

나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유명인들에게 늘 말한다. 인터넷상의 댓글을 읽지 말고. 그것에 신경 쓰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죽고 싶어진다고. 실제로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댓글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신경 쓰지 않는다. 만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신경 썼더라면 분명히 오늘의 나는 없다. 있지도 않은 일들, 사실도 아닌 것들이 사실처럼 회자되고 그것이 부풀려서 매스컴에서 떠돌아다닐 때 나라고 편했겠는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았으니 난들 괜찮았겠는가. 그러나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내 일을 했다.

대신 나는 '나의 주군이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그분 마음에 안 들까봐, 행여 그분을 서운하게 할까봐, 혹여 그분에게 누가 될까봐 나는 늘 마음을 쓴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 그만 아랫도리가 흘러내렸다. 그 때 그의 아내가 왕으로서 체통을 세우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말하자 다윗이 말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삼하6:21).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사람 눈이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나를 우습게 보는 자들 앞에서, 나를 우롱하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잔에 기름이 넘치게 하실 것이고, 나를 그들 위에 우뚝 세워주시리라.

# 베트남(VIETNAM)을 접수하자

지난 2009년 10월, 베네수엘라(Venezuela)의 루이스(Luis)목사를 비롯한 베네수엘라 목회자 10명이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한국을 찾아왔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동행했던 리빙스턴(Livingstone)목사는 "아버지 집에 오는데 무슨 연락을 하고 옵니까?" 하며 급작스런 방문에 놀라고 있는 목사님께 말했다. 2008년의 베네수엘라 집회를 통해 현지에서 만났던 리빙스턴목사는 당시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을 '파파(아버지)'라 불렀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는 터라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행의 리더 격인 루이스목사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베네수엘라를 살려주소서!" 국가를 살려달라는 루이스목사의 진술

독교인들을 통해서 간간히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베트남에 선교가 시작된 것은 프랑스의 식민통치시절부터라 할 수 있다. 2011년이 베트남 선교 100주년이라 하니 베트남의 선교 역사 역시 결코 짧지는 않다. 그러나 통일정부수립 이후 공산정권은 대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였다. 베트남 교회사 역시 프랑스 식민통치와 공산정권의 핍박하에서 자라온 역사라 할 것이다. 이번 베트남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폴킴(Paul Kim) 선교사의 설명에 따르면 베트남 선교의 역사는 100년이 넘지만, 베트남에 성령이 임한 지는 올해가 꼭 30년이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거의 소멸하고 심지어 친 정부적인 교

우리도 지난 1973년 빌리 그래함(Billy Graham)목사의 100만 여의도광장 집회를 한국 교회가 연합으로 준비하여 대 역사를 이루었고, 이후 한국교회의 부흥과 국가 발전의 큰 동력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

8월 베트남 호치민(Ho Chi Minh City) 집회는 베트남 전 교단이 연합하여 준비하는 집회이다. 목회자 5천명의 세미나와 2만여 명이 모이는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다. 베트남이라는 한 국가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침체되어 있는 베트남 교회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찌 마귀의 역사 또한 없을 수 있겠는가.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 '하나님도 쉬지 않지만 마귀 또한 쉬지 않는



베트남에도 이러한 성령의 대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자(2010 베네수엘라 목회자 세미나 광경)

한 모습은 목사님을 감동시켰고, 아마도 그때부터 목사님은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한 나라를 살리는 매우 중대한 사역임을 절감하신 것 같다.

오는 8월의 베트남 집회를 앞두고 목사님은 "베트남을 접수하자!"고 선포하셨다. 천국의 전권대사를 자처하는 목사님께서 '베트남을 영적으로 접수하자'는 선언은 베트남에 성령의 불을 던져 베트남을 마귀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시키는 대역사를 의미한다 하겠다.

베트남의 선교역사는 이미 10세기경부터 로마가톨릭의 신부들을 통해서, 무역상, 선원이나 외국군인들 가운데 일부 기

단에서는 교회에서 박수를 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침체된 베트남 교회를 다시 살리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 베트남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뜻있는 목회자들이 성령임재 30주년을 맞아 전 교단이 연합하여 대대적인 성령집회를 계획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폴킴 선교사로 유튜브를 통해 우리 목사님을 알게 하였고, 베트남 전 교단이 한뜻으로 목사님을 이 집회의 주강사로 초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교회와 국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 벌써부터 극심한 방해책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크게 일어나리란 징조일 뿐이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가 기도로 막으면 된다. 모두 합심하여 베트남 집회를 위해 기도하자.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폴킴 선교사를 위하여, 베트남 교단의 리더들이 흔들리지 않고 첫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6월 6일, 베트남 목회자들의 한국 방문을 정말 주님을 대접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영접하자.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8:26~39)

# 자랑과 간증은 다르다



자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음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음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가문과 학위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대단한 인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하고..., 이 도저도 없는 사람은 사둔에 팔춘이 어떻고 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십니까? 이런 자랑은 다 악한 짓임을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약 4:16).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기에 그렇습니다(요일2:16).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고후11:18). 이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빌3:5).

##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 자기를 자랑하면 나도 자랑에 뒤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뻥속까지 진짜 유대인이요,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심에 있어서는 교회를 박해한 자였고, 율법의 의에 있어서는 흠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 사사 받았고, 아람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도 능통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가문과 학벌, 학문을 모두 갖춘 자로 자랑거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자랑이 다 배설물처럼 무익하다 여기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기를 원했습니다(고후 12:9).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또 다른 고백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6:14).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

가만이 우리 인간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그는 알았고, 그것에 감사했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나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지 구분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돈을 자랑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혹 당신이 당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있다면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세상 사람이나,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의 것을 자랑하

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찌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렘9:23~24). 또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27:1)고도 하였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전3:21)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분을 자랑해야 옳습니다. 한나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삼상2:8)라고 자랑한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월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시23:1~2), “혹

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시20:7)라고 자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침을 튀겨가면서 자랑해야 합니다.

저는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자랑했다가 고통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나의 나 된 것

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를, 나약한 저를 택하사

## 만사형통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랑과 간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천의 어느 장로가 하는 사업이 거의 파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여 큰 회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간증을 하라고 했더니 그 장로가 하는 말이 아내가 자랑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장로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자랑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므로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증 이야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병에서 낫게 하신 하나님,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성경이 다 믿음의 선전들의 간증 아닙니까?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꿈을 꾸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스마트폰이며, 아내 자랑,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꺼먼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최고 권력자를 찾아가면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최고 권력자인 하나님을 찾아가 아뢰면 다 찾고 회복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자랑은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며,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도끼가 어찌 찌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사 10:15).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는지 압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1:28~29)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안에서 뿐입니다(고전1:31).

여러분, ‘자랑 끝에 불붙는다.’는 말을 아십니까? 자랑하는 그것이 올무가 되고, 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자랑하면 자식 때문에 속을 썩게 되고, 돈 자랑하다 돈 때문에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슴이 뿔을 자랑했지만 사냥꾼에게 쫓길 때 결국 그 뿔이頸쿨에 걸려 사냥감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죽을병에서 살아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을 연장 받은 남 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 소식을 들은 주변 국가들

:: 객원컬럼 ::

:: 교단소식 ::

##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윗사람을 공경하며 여러 가지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였습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삼강오륜(三綱五倫)’이 도덕교육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삼강’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간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오륜’이란 다섯 가지의 실천항목으로서 인간관계에서 꼭 지켜야 할 기본덕목입니다. 특히 ‘장유유서(長幼有序)’는 집안과 밖에서 모두 적용되는 항목으로 가정에서는 형제간의 차례를 이야기 하고, 밖에서는 연장자와 연소자간의 서열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해서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었는데 학교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행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꾸짖었다고 해서 학부모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선생님을 협박하는 실정이나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강대상에 뛰어 올라 목사님의 먹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하고, 이 사회에는 어른이 사라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라의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신앙의 차원을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해서는 아니 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로마서 13:1~2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한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고 굴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위대함은 배은망덕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울을 세 차례나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기를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해하지 않았습니 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무능한 지도자나 악행을 일삼는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세우신 권세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거나 대적하지 않더라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세상을 보는 창 ::

## 걸작품은 함께 만드는 것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은 프랑스에 있는 판테온(Pantheon)이다.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던 전쟁영웅 6,000명의 얼굴과 그 전쟁에 참전하였던 나라 대통령 초상화 16명도 그려 넣은 대작이다. 이 그림은 103명의 화가가 동원되었고,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릴레이로 그려진 대단한 작품이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집트 피라미드, 즉 쿠푸왕의 대 피라미드는 2.5톤 무게의 사각돌 300만 개가 사용되었고, 20만 명이 힘을 합하여 약 20년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듯 걸작품은 혼자 가 아닌 함께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마찬가지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만들어진 걸작품 인생이며, 모세는 아론과 함께 만들어진 하나님의 위인이다. 또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걸작품인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34명이 같이 완성한 작품이다. 이들 동역자들이 헌금으로 동역하고 목숨을 걸고 같이 수고하고 동역하며 바울 뒤에 있었기에 역사적 걸작품 사도 바울이 탄생되었다. 이들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 되었고, 나아가 온 세계가 복음화 되었다.

우리 예수중심교단을 생각해봤다. ‘우리 목사님 주위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나?’ 나의 대답은 Yes다. 아주 많다. 한 가지 예로 8월에 총회장 목사님의 베트남 집회에 관련된 베트남 목사님들 17명이 6월 6일 방한한다. 그 일로 담당 목사님과 인천교회 시무장로님들의 회의가 있었는데 가슴 뭉클했다. 그들은 총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오’가 없고, 목사님의 뜻을 먼저 알려고 노력했고,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것을 직접 보면서 깨달은 것은 ‘역시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치셨고, 우리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이다. 서울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많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고, 또 8월에 있을 베트남 집회가 걸작품으로 만들어질 것을 확신한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을 위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길 소원한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 JCC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난 5월 26일, 인천교회 대성전에서 JCC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아름다운 하모니와 익숙한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한 JCC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보면서 그야말로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욥기서의 말씀이 떠올랐다. JCC 오케스트라는 단장 겸 지휘자를 역임하고 있는 신일철 집사가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서 만든 오케스트라로, 시작할 때만 해도 저들이 과연 협연이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훌륭히 이뤄냈다. ‘안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못하는 것도, 못 이룰 것도 없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그들이 입증했다.

이날 피날레는 이초석 목사님이 작시한 ‘길목에서’였다. 기립박수에 앵콜까지 받은 이 곡은 방황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곡인데, 오케스트라 연주에 중창까지 합쳐져 우리

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총회장 목사님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신일철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단원을 극찬하시며, “다윗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바울은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했다. 찬양은 호흡이 있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시 150:3~6).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음악이 없는 세상은 사막처럼 건조하고 삭막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연주회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 수고한 모든 분들과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피력하셨다.

누군가 그랬다. 음악은 야만인의 가슴을 쓰다듬고, 돌을 무르게 하며, 웅이진 나무를 휘게 하는 매력을 지녔다고!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라면 어떤 능이 있겠는가!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JCC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8. 5. 26. 인천교회 대성전)

:: 생명의 말씀 ::

##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북미정상 회담까지 한반도의 급변하는 정세가 세계의 큰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정치에 냉소적이며 무관심하던 사람들까지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관심과 지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과거에 베트남의 역사를 예를 들어 ‘연방제를 실시했더니 결국에는 공산국가가 되었다더라.’, ‘우리나라도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잘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결국 틀어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북한의 태도가 그리 믿음직하지는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역사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바다가 갈라진 일이 있었습니까? 2000년 동안 그 국토와 이름이 사라진 나라가 다시 부활 독립한 전례가 있었나요? 역사상 불가능했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쳤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아 1948년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UN으로부터 원조 받던 세계 극빈국가에서 세계에 원조를 하는 나라로 우뚝 선 경제대국,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난 ‘한강의 기적’, 아니 ‘한강의 은혜’이야기입니다.

냉전시대 이후로 펼쳐진 긴박했던 세계 정세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 역사를 뒤져봐도 그 유례가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여기는 바로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이루실 것을 저는 알고 믿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의 기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마지막까지 더욱 힘써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현승 전도사  
coollee0817@naver.com

# 하면 된다

일본 에도시대 후반기 큐슈의 작은 영주 집안에서 태어난 우에스기 요우잔은 아들을 얻지 못한 채 장애인 딸만 남기고 심장마비로 죽은 영주 우에스기 집안에 17살 어린 나이로 데릴사위 양자로 들어갔다. 그 당시 요네자와 항은 극심한 궁핍과 부채로 인해 재정이 파탄지경이었고, 중신들은 무기력과 패배의식에 빠져있었으며, 자신의 지위만을 지키려는 보수집단이 된 구제불능의 상황이었다. 안 그래도 망해 가는 판에 어린 17살짜리 영주가 와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백성들은 더욱 실의에 빠졌다. 한편 요우잔이 부임해가는 중 자기 관찰지역 국경근처에서 하루를 유숙하려 했더니 국경근처 사람들이 세금은 무겁고 살기는 어려우니까 다들 식당이나 여관을 놓고 떠나버리고 없었다. 결국 유숙할 때가 없어서 노숙을 할 정도였다. 요우잔은 뭔가 살 길이 없을까 고민을 하며 가마를 타고 부임해가는 중에 가마 안에 있는 화로에 불을 켜려고 그 화로를 보니 불은 다 꺼지고 재만 남아있었다. 요우잔은 '재만 남은 화로가 우리 항 같구나.' 하고 탄식하며 불젓가락으로 화로를 뒤적거리는데 화로 밑바닥에 작은 불씨가 하나 남아있었다. 요우잔은 다 꺼지고 마지막 남은 작은 불

씨 하나를 보는 순간에 '내가 이곳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자.'고 다짐하며 숯을 넣고 불을 붙여 살렸다. 불이 다시 불고 살아나자 타고 가던 가마를 세우고 화로를 부하들에게 보이며, "내가 이 항을 보니 불은 꺼지고 재만 남은 화로와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가마 안에 있던 화로 밑바닥에서 작은 불씨를 하나 찾아서 불을 붙였다. 살 길이 없지 않다. 내가 앞장서서 불씨가 될테니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신하네, 군주네 구별하지 말고 이 항을 살리자. 나부터 앞장서서 땀 흘리고 희생해서 일할 테니 나를 도와 달라."고 하자 모든 신하들은 놀랐다. 겨우 17살 군주이니 철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망했다는 생각에 희망이 없었는데 어린 군주한테서 이런 기가 막히게 멋진 말을 들으니 모두가 감동을 받았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목숨 걸고 따를 테니 제발 이 항을 살려 주십시오." 라고 말해서 모두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신하 중 한 명이 "주군! 그 화로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걸 집에 놓고 새 군주의 이 개혁정신에 공감하는 사람은 사무라이든 상인이든 농부든 누구든지 이 화로의 불을 받아가서 자기 집에 불씨를 놓고, 또 그 불을 이웃집에서 이웃집으

로 전하고 전해서 우리 요네자와 항을 일으키는데 힘을 합하는 동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고 해서 불씨 퍼뜨리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요우잔은 비단이 아닌 목면으로 된 옷을 입고 식사도 밥 한 그릇에 반찬 하나로 검소한 생활로 모범을 보였으며, 그 결과에도 말기시대에 260개 항 중에서 제일 잘사는 항이 되었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흉년에도 굶어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요우잔은 미국의 케네디 전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는 일본인이라고 해서 널리 알려지기도 했으며,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지난 1000년 동안 일본을 빛낸 최고경제인 설문조사에서 5위를 차지했다. 그가 은퇴 당시 아들인 아키다가에게 내린 와가(和歌)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なせば成る なさねば 成らぬ 何事も 成らぬは人の なさぬ なりけり(무슨 일이든지 하면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일이든지 되지 않는 것은 사람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과 흡사하다. "못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 보자!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 From internet ::

## 위기를 기회로

1883년 뉴욕에서 보험업을 하던 보험설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큰 보험계약을 성사시키고 고객이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그만 잉크를 연지르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러 사무실로 달려간 사이 고객은 다른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마쳐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잉크가 옆질러지지 않는 펜이 없을까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관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년필을 만듭니다. 펜 안에 잉크를 담은 튜브를 넣어 잉크가 옆질러질 가능성을 없앴습니다. 그가 바로 '워터맨 펜컴퍼니' 설립자인 '루이스 에드슨 워터맨'입니다. 1884년 특허를 낸 워터맨 만년필은 지금도 유명한 제품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잡고 씨름하고 문제만 탓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해법을 얻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문제와 위기,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기회 삼을 것인가, 그것을 걸림돌 삼을 것인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 생활 속의 잠언 ::

# 목사님의 중보기도

아주 오래전, 청춘의 피 끓는 시절을 사는 동안에는 단 한 번의 감기도 걸리지 않았다. 건강의 중요성은 그저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 시절에 예루살렘(초대 예수중심교회)으로 입교를 했다. 그 때는 다른 의미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과 환란의 시절을 살아갈 때였다. 가끔씩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물질의 부요나 축복기도보다는 늘 건강의 축복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주셨다. 기도를 받고 돌아가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있었다. '목사님이 영감이 없으신가? 왜 이리도 건강한 나에게 건강을 위한 기도만 넘치도록 해주시지?' 세월이 흘러 나는 당뇨병을 얻게 되었고, 망막 변성으로 인한 실명의 위기를 여러 차례 이겨내었다. 비로소 오래 전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셨던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을 감사함으로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 지난 부활절 주간에 호치민에 갔었다. 호

치민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심한 내출혈과 온몸에 울긋불긋한 자반증상이 나타나면서 죽음의 문턱을 오갔었다. 한국이었다면 응급실로 실려 갔을 상황이었지만 타국에서의 응급치료는 정말로 여의치 않았다. 삼십년 가량 다져진 신앙의 힘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부활절 새벽, 주님께 기도를 했다.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데려가셔도 감사한데 저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목사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한국까지라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들었다. 잠시 잠이 들었다가 위성으로 부활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새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주님께서 기도 항아리를 확인하셨는지 내출혈도 사라지기 시작했고 손과 다리의 붉은 반점도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회

복되기 시작하였고, 남은 일정을 무사히 소화할 수 있었다.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안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던 서울의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귀국하라는 허락을 해주셨다.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15만개가 정상이라는 혈소판 수치가 2천개까지 떨어져 있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죽으려면 호치민에서 죽었을 사람이었다고 혀를 내두르셨다. 오래전 목사님께서 적금처럼 부어주셨던 건강을 위한 축복 기도가 나를 살렸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 시절처럼 지금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축복의 기도는 기도의 항아리에 오늘도 쌓여가고 있음을 믿는다. 늘 사랑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올려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살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린다.

오자유 집사

lovelyactor@naver.com

# 나그네대접

작년에 예수중심교회 페이스북을 통해 찾아온 한 캐나다 유학생 자매를 교회에서 소개받았다. 이 자매는 잠시 방학기간 한국에 머무르는데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싶어 우리 교회를 진작 캐나다에서부터 검색해보고 '한국에 가면 이 교회에 가봐야지'란 생각에 왔다고 했다. 솔직히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떻게 처음 우리 교회 오시게 됐어요?' 질문하는데 유튜브도 아닌 페이스북을 통해 성도님이 오셨다니 생소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 자매를 대하였다. 혹시나 이상한 단체에서 온 사람은 아닌지 처음에는 약간의 의심도 들었다. 그런데 그 자매와 여름수련회에 같이 참석하고 자매가 눈물 흘려가며 뜨겁게 기도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에서 '이 자매의 신앙은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대접하고 도와주었다. 그리고 방학을 마치고 자매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다. 자매가 캐나다로 돌아간 후에도 소속단체 팀원들과 인연의 끈은 이어졌다. 자매가 멀리 타향에 있어도 자주 안부를 물어주고, 되레 옆에 있는 것처럼 챙겨주었다. 또, 인터넷으로 자매의 영·혼·육 성장을 위해 기도해주고 낙망할 땐 위로, 교만할 땐 훈계의 성경말씀을 같이 묵상했다. 그랬더니 지난 4월, 자매는 1년 만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고 잠시 머문다며 다시 예수중심교회를 찾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언니까지 전도해오고 우리 교회야말로 영적충전소라고 말해주었다. 그 자매의 언니는 처음 교회에 온 날 예배를 드리고 바로 캐나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안수를 해주신 총회장 목사님, 따뜻하게 맞이해준 교인들에게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다. 두 달 동안 자매에게 최선을 다한 결과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40)는 말씀이 떠오른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